

빨간 떡볶이로 맺어진 인연,

75사단 호국 철마사 법당 봉사자들



떡볶이 법회로 인연을 맺고 있는 봉사자들이 활짝 웃고 있다. 사단에 적을 둔 봉사자들부터, 지역 사찰 스님, 떡볶이 보시를 위해 먼길을 찾아온 불자들까지 모두 군장병들을 위한 한 마음이었다.

“군인 아저씨! 이 쪽에서 떡볶이를 퍼가도록 해야지... 아이구, 저 아저씨 저렇게 많이 고추장을 넣으면 어떡해?”

9월 6일 법회가 한창이던 경기도 남양주시 75사단 철마부대 군법당. 모락 모락 김이 올라오는 떡볶이를 만드는 군장병들을 부르는 보현경 보살(이칭자·73)의 목소리가 법당 밖까지 울려 퍼졌다.

호국 철마사 식당의 한쪽에서는 떡볶이 떡과 어묵 등을 조리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날은 철마부대 군장병들이 한달에 한번 손꼽아 기다리는 ‘떡볶이 법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보현경 보살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5~7명이 불자장병들을 위해 떡볶이를 보시한 지 15년이 흘렀다. 이른바 ‘떡볶이 법회’다. 떡볶이 법회는 특정 주관단체가 없이 인연법이 닿는 불자들이 실시할만 참여하고 있었다. 떡볶이 법회가 만들어지기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노력해 있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서울 강남과 수원, 인천, 분당 등에서 떡볶이 보시 하나로 남양주까지 먼 길을 봉사자들은 마다 않고 달려왔다. 이들은 손발을 맞춰 순식간에 떡볶이를 만들어 냈다.

보현경 보살은 “일선 법당에서 단순한 법회를 진행하면 군장병들이 찾지 않는 곳이 많았다. 조금이라도 부처님 법을 접하게 하고자 간식거리를 제공했고, 그러나 보니 이렇게 떡볶이를 만들게 됐다”고 했다.

아직 불심이 영글지 않은 군장병들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는 곳으로 불리는 것이 인지상정. 떡볶이 법회를 시작하고서 효과는 놀라웠다. 보통 법회 때 100여 명의 장병이 몰리던 것이 250여 명까지 늘어난 것이었다. 예비부대 인원 감축으로 75사단 장병들의 수가 줄어 최근에는 50명에서 100명 가량이 법당을 찾고 있다. 하지만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의 10여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정도 장병들이 법회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는 명물이 된 호국 철마사의 떡볶이 법회는 보현경 보살의 남편 지수 강도식 포교사(77)와의 인연으로부터 시작됐다. 강 포교사는 군에서 드물게 신심이 깊어진 불자였다. 강 포교사는 중령 예편 후 1997년 조계종 포교사가 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군포교에 뛰어들었다. 남양주 봉선사 사무장을 맡게 되며 인근 철마부대, 연천 28사단 신병교육대, 청학 호국사 등에서 군법회를 지도하게 되며 보현경 보살도 함께 군장병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뛰어들게 됐다.

처음에는 과자며 음료수를 주는데 그쳤다. 그러던 것이 역시 자원봉사자였던 도성인 보살의 어머니가 떡볶이를 만들어 보시하며 본격적인 떡볶이 법회로 진행됐다. 지금은 어머니의 원력을 이어받아 도성인 보살이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떡을 것을 준다기

**봉선사·화계사 봉사 인연이 철마사로
군장병 떡볶이 보시 15년 이어와
이웃종교 종교활동 비해 장병 10배 넘어
법회·음식장만 등 분업화해 상부상조
인천에서 전날 출발, 밤새서 봉사하기도
군장병 편지글 “떡볶이 불교 알게 돼”**

에 모인 장병들이지만 지금은 장병들을 모이게 하는 것은 그것 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호국 철마사 자원봉사자들의 열정 때문이었다.

“군법회의 실행활동은 이웃종교에 비해 매우 열악해요. 숫자로 적을뿐더러 비교적 혜택도 적기 때문이지요. 민간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초코파이 하나, 불펜 한 자루가 군인들에게는 종교활동의 선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 유혹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불교를 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시절 들은 부처님 말씀 한구절이 평생 가는 법이니깐요.” 떡볶이를 만들며 봉사자들

은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처음 떡볶이 법회를 시작할 때는 어려움도 많았다고 한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재정적인 문제였다. 보현경 보살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립의료원 봉사활동도 나서고 있는 보 보살은 군포교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털어냈다.

“아시아시피 이런 곳에 까지 종단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잖아요. 군법사님들이 많지만 아직 없는 법당도 많아요. 결국 부대와 인연이 닿는 지역봉사자들이 실시할만 꾸려나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선사찰의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봉사들이 많을 때는 한끼를 보시하는데도 약 50여 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다행히 백령도 주지 부명 스님이 떡과 초코파이 등을 재료를 후원해주었다. 국립의료원 봉사도 함께 나서고 있는 보현경 보살은 자녀들도 봉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 보살의 세 자녀들은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떡볶이 봉사를 후원하고 있었다.

이런 힘을 모아 군포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의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돈보다도 떡볶이를 만들거나 사찰에서 49재를 지내고 남은 사랑, 약과 등 군인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 하나가 더 절실하다.

특히 떡볶이를 직접 만드는 도성인 보살은 그 어려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재가자들이 쌀 등을 얻기 위해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다행히 스님 등 불자들이 조금씩이나마 도와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재료준비, 차량 지원 등 역량을 아끼지 않는 동료 자원봉사자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도성인 보살은 처음 어머니를 따라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상계동 사천왕사에서 의민대 결식아동 급식봉사 등을 거쳐 현재 철마사까지 흘러왔다. 서울 상계동에서 거주할 무렵 시작한 봉사활동은 인천으로 이주해서도 이어져 오고 있었다. 철마사 떡볶이 법회가 열리는 날이면 도 보살은 전날 인근으로 이동해 사우나에서 자고 아침에 봉사활동을 하고 귀가한다.

도 보살은 “법당을 올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따로 볶아 만드는 떡볶이 방식이 어머니가 군장병을 위해 개발하셨다. 어머니가 남긴 방법대로 떡볶이를 만들며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떡볶이 법회는 분업화가 잘 되어 있었다. 떡볶이 법회에서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은 강기천 법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강 법사는 화계사 성광 스님의 유발상좌였다. 화계사 성광 스님은 육군 중령 출신으로 군법사제도 안착 등에 크게 기여했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의장등록

사업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료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매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인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 등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돼,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폭도 안 좋고 불경기도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 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 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무료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풀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개업선물, 사업성공의 선물로 품격

- ▶ 가격 :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 ▶ 문의 : (02)723-4533
- ▶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사찰·스님 20% 할인)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평생부자지갑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아가는 데 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얻고 평생부자로 살게!!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 있다. 고급소가죽에 에나멜 처리 까치한일 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별도로 움자르된 교룡카드 쫓기도

있다.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23-4533 (사찰·스님 20% 할인)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www.kapilla.co.kr * 공휴일 접수 가능



의장등록

호신불구규격직경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용 호신불

운전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옆주를 고정시켜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옆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

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를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자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날 안병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자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를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풀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스님 20% 할인) 문의 : (02)723-4533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군장병 마음속 불심으로 물들인다



일손을 거드는 군장병과 철마사 보살님이 함께 떡볶이를 만들고 있다.



법회 후 철마사 군장병들이 떡볶이를 받아가고 있다.



법회에는 60여 장병이 참여했다. 인근 이웃종교 활동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강 법사는 “은사 스님께서는 항상 균포교를 강조하셨다. 화계사 봉사단에서 인연을 맺은 불자들이 호국 철마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에 처음 찾게 됐고 그 인연으로 이 곳에서 10여년 째 민간인 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법사는 “최근 아들이 군대에 간 상태”라며 “모인 군장병들에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강 법사는 ‘잘먹고 잘사는 법’을 소개하셨다. “어려부터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가 네티즌들의 악플에 시달리며 털어 눈 사연을 장병들에게 소개하며 불교에서 마음다스리는 법을 설명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격이 밝은 것으로 유명한 홍진영 씨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강조합니다. 연기법은 쉽게 말해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에 다른 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영향으로 다시 자신이 상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후임간에 무심코 내뱉은 거친 말 한마디에 서로가 힘들어 질 수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 법사가 최근 연에게 이슈로 법문을 하는 동안 군장병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 모습이였다.

“군 법회에서는 장병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리를 말하더라도 듣는 이들이 듣지 않

는다면 말그대로 ‘소 귀에 경읽기’겠지요. 처음에는 불교교리 위주로 법회를 하다가 최근에는 사회 이슈를 통해 불교 가르침을 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되도록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강 법사는 장병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왜 가져야 하는지를 직접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병사들은 2년 주기로 바뀝니다. 처음 오자마자 밥심을 하여도 불교를 알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요. 차라리 인생에서 힘들 때 어떤 방식으로 불교적 사고를 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인생선배로서 전하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한 장병이 법회 후 찾아와서 ‘불교에서 출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더군요. 그때 이 장병을 데리고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불자들이 청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보면 언젠가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이날 법회에는 봉선사 법등 스님과 75사단 불자들이 함께 봉사에 나섰다. 이들은 매주 철마사 법회의 맥이 끊기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법등 스님은 “어린이·청소년, 균포교 분야는 불교의 미래라고 볼 수 있음에도 아직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웃종교와 비교해 중단의 여려도 부족하고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본사 차원에서 힘이 되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식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불교가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현재 남편이 75사단에 원사로 근무 중인 세연화 보살

은 “평소 주말 법회에도 많은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떡볶이 법회를 계기로 전역한 장병들이 후원하는 등 힘이 되고 있다. 많은 불자들이 이런 현장 포교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연화 보살은 “군장병들을 위한 일이 군 생활하는 남편에게도 힘이 되는 것 같다. 법회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보살님부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법회가 끝나고 장병들은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부대도 내려갔다. 법회에 오지 못한 군무장병들을 위해 한보파리떡볶이를 싸가는 모습에서 바깥 사회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는 인정이 넘쳐 흘렀다.

보현경 보살은 끝으로 지난해 한 병사로부터 받은 편지 한구절을 소개했다. “처음에 먹을 것을 위해 밥당에 나가던 자신이 부처님 법을 접하고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밖에서도 열심히 절에 나가겠다는 이 장병의 편지글에 보현경 보살은 건강상의 이유로 봉사활동을 그만두려고도 했던 마음이 저만치 달아났다고 털어냈다. “저희들이 모여서 만드는 떡볶이 한 그릇 한 그릇을 먹는 군장병들이 나중에는 전역 후 사찰에서 불자로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떡볶이 속에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심이 전해지는 하루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꽃밭과 노스님

하루가 다르게 산 빛이 달라지는 걸 보니 정말 가을이 왔나보다. 내가 있는 절 앞마당에는 해마다 가을이면 설악초가 작고 예쁜 꽃을 피운다.

일도 희고 꽃도 희어서 꽃이 피면 마치 흰 눈이 온 듯 하얗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설악초는 입적하신 혜안스님이 참 좋아했던 꽃이다. 노스님은 이생에 인연을 다 하여 3년 전 먼 길을 떠나셨는데, 설악초는 아직도 인연이 남아있인지 피고 질 때마다 스스로 씨앗을 떨어 주어 해마다 가을이면 절 마당 한가득 새하얀 눈꽃을 뿌려 놓는다.

홀연히 떠났던 3년간의 만행을 접고 대구의 조그만 절 대륜사에 머문 지도 이제 11년이 훌쩍 넘었다. 세상 가운데 배움을 찾고자 만행에 올랐다가 노스님의 병환

가득 핀 꽃밭 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하염없이 꽃을 바라보던 때가 생각난다. 가을 햇살을 받으며 모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떠나면 그리울거야. 나처럼 기도하자는 말을 누가 하겠느냐.”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스님은 언제나 법당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항상 꽃을 볼 수 있도록 꽃밭을 조성했기 때문이라 하셨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올리는 꽃공양이라고.

오늘 아침 새벽예불을 마치고 법당문을 열어젖히다 문득 노스님이 떠올라 “우리절 꽃밭”이란 노래를 불러보았다. 노스님께서 살아계실 때 곡을 써보라 해서 절 마당 꽃밭을 가꾸던 일을 떠올리며 내가 노랫말을 썼던 곡이다. “우리절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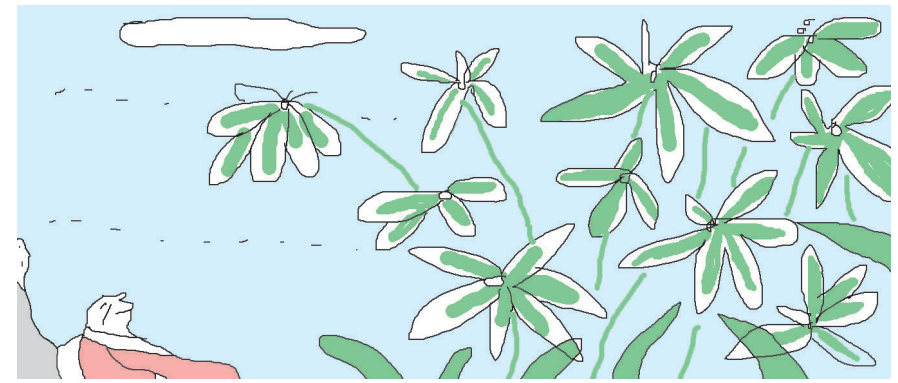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소식을 듣고 잠시 들렀는데, 병환 중에도 서릿발이 성장하셨던 노스님은 만행 중인 내 모습을 보시자마자 호통을 치셨다. 무일푼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다니던 중이라 꽤나 행색이 누추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네 승복이 멸정한 걸 보니 그동안 만행을 다닌 것이 아니라 여행을 다녔구나.” 하시며 꾸중하셨다.

스님께서는 참 모질게 기도를 하셨다. 출가수행자가 365일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이나 하시며, 밤이고 새벽이고 기도하겠다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 바랑을 꾸리라 하셨다. 그 길로 차를 몰아 강원도로, 전라도로 밤새 달려 산 아래 암자나 바위 밑 어디든 앉을 곳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기도하셨다. 어떤 때에는 신도가 절에 찾아오면 사정도 묻지 않고 “기도하라 가자” 하시며 차에 태워 함께 기도를 떠나셨다. 혹여 신도가 다른 바쁜 일이 있다고 우물쭈물하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은 내일 해도 되지만 기도는 내일이 없다” 시며 야단을 치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막무가내였다.

4년 전 이맘때쯤 어느 가을날, 입적하실 때가 가까워지신 스님께서 설악초가

밭에 꽃들이 가득/ 노란 꽃 분홍꽃 연보라 꽃이/ 봄 여름 가을에 피어나지요/ 맘 흘러 풀 뻗고 가꾸어주면/고마움 아는 듯 더욱 예뻐라/ 오늘도 스님은 꽃밭 가꾸며/ 부처님께 꽃공양 올리고 있네.” 만약 지금 스님께서 곁에 계셨다면 이 가을 예쁘게 피어난 새하얀 설악초를 참 좋으리라 하셨을 터인데...

가끔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지고 구도심이 약해질 때면 나는 꽃밭을 가꾼다. 마음의 잡초도 뽑고 중심 없이 쓰러진 심기(心氣)도 바로 세우고 선형의 꽃씨도 심으며 본분사(本分事)를 잊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는다. 스님께서는 떠나시며 “내가 먼저 가서 터 잡고 있을 테니 공부 잘하고 오거라.” 하셨는데 나는 다시 스님을 뵈 수 있을까. 혹여 남은 생애 동안 공부가 미진하여 스님을 뵈 수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싶다. 오늘도 하얀 설악초 향기가 살랑살랑 가을바람에 실려 내게로 온다. 약속을 잊지 말라고, 더욱 정진하라고 내게 죽비를 내린다.



덕신 스님(홍은빛 풍경소리 회장)

since 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010-2094-2991-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12월:상호인쇄

12월:상호인쇄

12월:상호인쇄

12월:상호인쇄

12월:상호인쇄

12월:상호인쇄

12월(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 **1000** 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25.8cm ×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 정가 1800원 @ **1,600** 원
- 규격: 30cm × 63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 100부 @800원 @ **650** 원
- 규격: 9.5cm × 13.4cm
- 매수:18장

탁상달력 200부 이상 @

- 정가 1800원 @ **1,600** 원
- 규격: 26cm × 19cm

미니달력 200부 이상 @

- 100부 @600원 @ **450** 원
- 규격: 8.9cm × 9.5cm
- 매수:16장